

NEWS

회원사뉴스 KDHA

■ 한국지역난방공사

2006 국제표준시스템경영상 수상
- 표준화된 환경경영시스템의 체계적 시스템 운영으로 환경경영부문 대상 수상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영남)는 지난 5월 19일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된 2006 국제표준시스템경영상(ISSMA)에서 환경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금년으로 5회째를 맞는 국제표준시스템경영상(한국표준협회 주관)은 국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품질, 환경,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분야에서 운영 실적이 우수한 기업체를 선정·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시스템 경영상이다.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 고객만족대응체계가 잘 구축·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6월 23일 기획예산처가 확정하여 발표한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2005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대전열병합발전(주)

지난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민영화된 대전열병합발전(주)은 5월 25일 창립 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모범 직원과 10년 장기근속자(에너지관리공단 근무년수 포함)에게 상패와 금일봉 수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신동오 사장은 기념식에서 "지난 한해동안 열심히 노력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수요개발의 확대, 설비 효율화와 원가절감, 회사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목표 달성을 향해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대전열병합은 현재는 대전지역 15개 아파트단지 8919세대와 5개소에 열공급을 하고 있으며 둔산지구 13개 단지 및 테크노밸리 2차 6개 단지를 포함해 모두 1만 4517세대에 열공급을 위한 열배관 공사를 시행 중에 있다.



■ 인천종합에너지(주)

지난 6월 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6층 대회의실에서 창립2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휘 사장은 모범직원과 공로직원에게 대한 표창 후, 모든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완벽한 건설공사 수행을 당부했다.

※ 모범직원 : 업무부 남승수 주임

※ 공로직원 : 토건부 박정훈 과장, 운영부 서대천 대리



■ 한전기공(주)

한전기공(대표 함윤상)이 6월 20일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06 한국서비스대상」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종합대상을 수상, 고객서비스 경영활동의 우수성을 대외로부터 인정받았다. 한전기공 함윤상 사장은 "이번 수상은 고객의

중요성에 대한 직원들의 마인드가 그 만큼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 것"이라며 "고객으로부터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원들이 인식하고 서비스 자세가 변하게 된 결과"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전기공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고객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최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어깨동무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세계적인 플랜트종합서비스 회사로 도약하고자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구월철강(주)

2006년 5월 17일 이종보온관 설계/제조/시공 업체인 구월철강(주) 박광수 사장이 "2006년 전국중소기업인대회"에서 "모범중소기업인" 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

"제18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이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시상식에는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경제단체장, 중소기업CEO 등 5백 여명이 참석하였고, 모기업인 대주그룹에서는 이태홍 부사장(구월철강(주)), 박주순 전무, 이재인 상무, 이태희 이사 등 임직원이 참석하였다.

■ 지역난방 열요금, '06년 8월 1일부터 1.61% 인상

경영합리화를 통해 고유가 지속에 따른 인상 요인 최소화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영남)는 오는 8월 1일부터 지역난방 열요금을 1.61%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난방 열요금 인상은 OPEC의 고유가정책과 중동 정세의 불안 지속, 각국의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의 심화 등의 영향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LNG연료 특별소비세부과(1kg당20원)에 따라 발전용LNG연료 가격이 3.06% 인상, 국제유가는 '05 하반기 대비 '06 상반기에 13.4% 인상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지역난방 열요금 인상에 따라 주민들의 부담은 연간 난방비가 현행 836천원에서 849천원(32평 아파트 기준)으로 약 13천원(1천원/월, 부가세 포함)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나, 지역난방 열요금은 LNG 개별난방 등 타 난방방식에 비해 이번 요금 인상 후에도 여전히 22~36% 정도가 저렴한 수준이다

■ 국회 후반기 산자위원회 새로이 구성

위원장에 이윤성(한)의원 선출
국회는 6월 20일 제17대 국회 제2기 산자위원회 위원장에 이윤성 의원을 선출하고 22명의 위원을 선임하였다. 이윤성 위원장은 한나라당 소속 인천 남동구갑 출신 3선 의원으로 제15대, 16대에 이어 17대 국회의원에 재임하고 있다. 한편 산자위원은 열린우리당 김덕규, 김태년, 김형주, 노영민, 서갑원, 염동연, 오영식, 우제형, 이시종, 조정식, 최철국 의원이 한나라당은 곽성문, 김기현, 김성조, 박순자, 심재철, 이규택, 이명규, 이병석, 이윤성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이상열 의원이 무소속에서는 권선택 의원이 선임되었다.

여·야 간사에 서갑원(한), 김기현(우)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 에너지합리화자금 상반기 75% 배정

에너지관리공단은 200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결과 올해예산 6,549억원의 75.6%인 4,951억원이 융자추천 됐다고 지난

7월 4일 발표하였다. 또 고유가 지속으로 2004년 및 2005년도는 자금신청이 5월에 마감됐으나 올해는 하반기에도 당분간 계속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년에 비해 자금접수기간이 길어진 것은 지난해 해 소요자금의 100%를 융자 지원한데 반해, 올해는 소요자금의 80%지원으로 지원을 줄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집단에너지사업자금은 상반기까지 금융기관의 대출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는 하반기에 다시 배정하게 돼 곧 재배정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남·삼천리 집단에너지사업 합작법인 설립 협약 맺어

수원 호매실 지구 협력, 상생의 활로 열어- 지분 삼천리 51%, 한남 49%
지난 6월2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최대 도시가스 공급사인 삼천리와 리츠칼튼 호텔에서 '수원 호매실 지구 집단에너지사업'을 위한 합작 투자법인 설립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양 사업자간 합작투자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원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설립해 2010년 10월부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호매실동, 당수동, 오목천동, 일대 아파트 1만6천 세대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 총 투자비는 1,500억원이다.

■ 집단에너지사업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연계 망 구축, 잉여 열 거래허용 등 집단에너지 비교지역도 지역난방 공급 명문화
규제개선 '자유경쟁' 폭 넓혀
산업자원부는 집단에너지 사업자간 잉여 열 거래가 가능해지고 집단에너지 지역지정 시

민간 참여가 확대되고 서류간소화, 처리시한 단축, 규제완화 등 집단에너지 공급에 있어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경쟁의 확대를 골자로 한 집단에너지사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자부는 법령안 개정으로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집단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노정된 갈등요인의 합리적 해소기반이 마련되어 에너지 절약효과가 우수한 집단에너지의 확대보급이 촉진될 것이라고 있다. 개정법령(안)은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당정협의, 법제처, 심사 국회제출 등 절차에 의해 내년부터 발효 될 예정이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시행령 개정(안)

에너지 진단 의무화 시행
산업자원부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6월24일부터 에너지다소비업자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 사전협의 강화 및 기준평균연비에 미달된 자동차 제작사 등에 대한 개선 명령 등의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한 새 제도들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업자는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한다.

에너지 정보

■ 통계센터 설립추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이 국내에너지 통계뿐만 아니라 해외에너지정보를 단일화하는 '에너지정보' 통계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계센터가 설립되면 국내외에 분산된 에너지 정보 통계를 국가 지식 인프라로 통합할 수 있어 정부, 산업계, 연구계의 정보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하반기 유가 63~67달러로 전망

하반기 유가 전망을 63~67달러로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이란 핵문제가 지속되고 세계 석유수요가 140만 t/d 내외로 증가하는 동시에 OPEC의 여유 생산 능력이 160만 b/d 내외로 제약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